

■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모로코

- 모로코 경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임. 2002 년 WTO 의 권고에 의해 최대 수입장벽이었던 종량세를 폐지한 것을 출발점으로 2003 년도부터 외국투자를 적극유치,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4 년에는 미국 및 터어키와 FTA 를 체결하고 아랍 4 개국과의 FTA 추진서명 등 경제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. 따라서 이의 내용과 영향을 분석해 보겠음.

□ 모로코- 아랍 4 개국의 FTA 추진현황

- 2004 년 2 월 모로코 남부 아가딜시에서 모로코, 이집트, 튀니지, 요르단 4 개국은 2005 년도말까지 FTA 를 체결한다는 합의(Agreement)에 서명하였음. 특히 이번 합의는 EU 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EU 는 아랍 4 개국의 FTA 추진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사무국운영에 4 백만 유로를 지원하고 있음.
- 위의 아랍 4 개국간의 교역은 아직은 미미하고 FTA 실행과 효과면에서도 단기적으로 크게 기대키 어려우나 2010 년까지 EU-지중해국 자유무역지대 창설(The creation of EU- Mediterranean free trade area)을 목표를 하고 있는 “바르셀로나 선언”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됨.

[모로코-미국, 터어키와의 FTA 체결 및 주요내용]

□ 모로코-미국 FTA 체결과 주요내용

- 모로코는 지난 2 년간의 협상을 걸쳐 2004 년 3 월 미국과 FTA 를 공식 체결하고 양국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음.
- 이번 FTA 체결로 모로코 공산품의 99%가 대미 수출시 0%의 관세가 적용되며, 이에 따라 모로코의 주종수출품인 수산물과 봉제품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 그러나 봉제수출은 원산지규정이 적용되어 100% 모로코산이나 미국산 원단사용에만 0%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임. 모로코의 섬유산업이 발달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10 년까지는 예외규정을 두어 외국원단을 사용시에도 매년 3 천만미터까지는 대미 수출시에 무관세기로 합의하였음.
- 미국측으로서는 모로코 국내산업보호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개방될 농축산물, 플라스틱, 가구, 자동차산업 등을 제외한 보험, 의약품, 정보통신, 금융과 전기전자 등 미국의 경쟁력 우위분야에서 모로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.

□ 모로코-터어키간 FTA 체결과 영향

- 모로코- 터어키는 지난 2004 년 4 월 7 일 터어키에서 FTA 조인식을 가졌음. 이로 인해 터키제품이 대모로코 수출시 최대 45%의 수입관세가 철폐되어 양국간 교역의 활성화가 기대됨.
- 모로코 주요산업이며 민감품목인 농산물 및 섬유제품은 10 년간 점차적인 관세경감 대상품목으로 선정되어 단기간에 양국간 교역급증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.
- 터키업체들의 경우 이미 FTA 체결을 기점으로 20 여개사가 대 모로코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모로코-미국간 FTA 체결로 터키의 전자 및 섬유/봉제업체들이 모로코를 생산기지화해 미국시장을 공략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. 터키는 모로코의 고속도로 건설 및 국영기업 민영화 등에 총 5 억 8 천만달러의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중에 있음.

□ 모로코의 민영화 추진현황

- 2003 년도에 모로코 전매공사 지분 80%가 12 억 9 천만유로에 프랑스-스페인계그룹인 Altadis 사에 매각되었음. 또한 프랑스 르노자동차사가 모로코 국영 자동차조립회사인 소마카(Somaca)의 지분 38%를 매입, 총 46%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 경승용차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음.
- 2000 년도에 모로코 최대 통신공사 Maroc Telecom 의 주식 35%을 20 억유로에 매입한 프랑스 비벤디(Vivendi)사는 2004 년도에도 정부보유주식 16%를 추가 매입, 최대주주가 될 전망이다.
- 모로코는 국영 국민은행 Banque Populaire 의 주식 전부를 매각, 민영화를 추진중인데 프랑스, 스페인계 은행들이 참여를 밝히고 있음.

□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나라의 영향과 대책

- 모로코-EU 간에는 2010 년까지 모든 관세를 철폐한다는 관세인하협정이 체결되어 모로코에 수입되는 EU 제품의 관세가 매년 인하되고 있음. 반면 모로코의 수입관세율은 평균 32.5%로 높으나 우리나라의 주력수출품인 직물, 자동차, 화학제품, 철강 등은 관세인하 혜택을 받지 못해 가격경쟁력이 불리해 지고 있음.
- 또한 모로코-미국의 FTA 타결로 IT 분야, 백색가전분야, 공구류, 전기제품, 보안장비 등의 미국제품 수입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수출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.
- 모로코-미국간 FTA 타결로 외국기업들의 대모로코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기업들도 중장기적으로 유럽시장진출 및 대미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모로코 투자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. 또한 모로코 국영기업 민영화에 따른 경제개방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.

(문의처 : 카사블랑카무역관 이명구 goolee@kotra.or.kr)